

#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강은교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수료

김은주(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 읽기
  - 2.1 지금-여기의 젠더 관계를 낫설게 하기
  - 2.2 페미니즘 인식의 순간과 차이의 윤리
- 3 듀나의 「두 번째 유모」 읽기
  - 3.1 아버지의 폭력성을 비꼬아 뒤집기
  - 3.2 안티-오이디푸스 서사와 소녀 유목민
- 4 SF의 잠재적인 미래와 페미니즘 대안 세계

본고는 한국 페미니즘 대중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에 주목한다. 한국의 SF 작가들이 페미니즘의 정치적, 이론적 논의와 문화적 풍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해 사유하는 SF 텍스트를 페미니즘 논의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논의에의 기여로서 적극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두 편의 SF 중편소설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2017)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2017)를 독해한다.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는 성차별이 온존하는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인공지능 화자의 시선을 통해 낯설게 함(defamiliarization)으로써, 동일성의 폭력에서 벗어나 차이를 긍정하는 데 젠더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듀나의 「두 번째 유모」는 아버지의 폭력성으로 인해 균열이 난 기존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욕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새로운 삶의 조건을 찾아 나서는 모험 서사의 주인공으로 소녀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주체성을 형상화하고, 세계의 안티-오이디푸스적 재편을 꾀한다.

SF가 그리는 세계는 그 배경이 연대기 상으로 미래이던, 과거이던, 현재이던 지 간에 단 한 번도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제나 잠재적인 위상을 가지며, 미래를 향해 있다. 이러한 SF의 잠재성/미래성은 차별이 온존하던 과거를 의식하면서 차별이 사라진 더 나은 미래를 열망하는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시간성과 교차하면서 페미니즘 대안 세계를 생성한다. SF의 잠재적인 대안 세계는 현재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의 결정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힘을 갖는다. 이와 같은 SF의 장르적 특성이 작가들, 독자들 모두에게 젠더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주요한 자원이자 방법으로 인식됨에 따라 ‘한국 페미니즘 SF’의 저변이 확장되고 있다.

국문핵심어: SF, 페미니즘 SF, 듀나, 김보영, 잠재성, 동시대성

## 1 들어가며

스마트폰, 인공지능 비서, 유전자 조작 식품 등 우리의 현대적인 삶은 SF와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기술과학의 발전은 우리 삶의 조건을 재편하면서 물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변화가 수반하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한다. 그리고 장르로서의 SF는 가능한 변화를 상상하고 그 변화로 인해 재편된 세계를 그려낸다는 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 준다. SF의 미적 특질을 7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 SF 이론가 이슈트반 치체리-로나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SF가 하나의 장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이자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sup>1</sup> 기술과학이 현재 우리 삶을 광범위하게 조건 짓고 있음에 따라, 기술과 과학이 우리의 세계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SF의 장르적인 특성이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F는 그 어떤 장르보다 “변화가 유일한 상수인 21세기”<sup>2</sup>에 어울리는 장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일까, 2010년대 후반 들어 한국의 출판 시장과 문학장에서 SF가 부쩍 조명받기 시작했다. 2016년 즈음부터 SF 전문 출판사들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시대와 언어의 해외 SF 소설이 번역 출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SF 작가들의 창작 SF가 앤솔로지나 단행본의 형태로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SF 출판의 양적 팽창은 SF 도서의 판매량 증가<sup>3</sup> 및 SF 독자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하며 한국 SF 문학 장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쏟아져 나오는 작품들과 늘어나는 SF 독자들에게 응답이라도 하듯, SF 문학에 대한 비평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문예지 『자음과 모음』은 2019년 가을호의 특집을 〈SF 비평의 서막〉이라는 제목으

1 치체리-로나이는 이를 ‘과학소설성(science-fictionality)’이라고 일컫는다. Istvan Csicsery-Ronay Jr., *The Seven Beauties of Science Fiction*,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8, p.3.

2 세릴 빈트, 전행선 역, 『에스에프 에스프리: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아르테, 2019, 289쪽.

3 인터넷 서점 yes24는 2019년 장르소설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SF 뿐만 아니라 추리, 판타지, 공포 등 장르소설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모두 포함한 통계이긴 하나, 소설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SF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여럿 포진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SF 판매량의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http://ch.yes24.com/Article/View/39497> (접속일: 2020.2.20.)

로 꾸리면서 한국 SF에 대한 적극적인 비평을 시도했고, 최근에는 SF 전문 무크지 『오늘의 SF』가 창간되면서 SF에 대한 담론 생산을 본격화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는 2019년 주요 출판계 키워드로 “주류가 된 장르”를 꼽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SF의 도약”을 강조하기도 했다.<sup>4</sup> 한국 창작 SF의 역사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sup>5</sup> ‘순문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문단의 비평 및 출판 관행과 SF를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공상쯤으로 치부하는 대중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한국 SF 문학은 오랫동안 학술적이고 비평적인 차원과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차원 모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한국 창작 SF가 평단의 주목과 대중적인 호응을 모두 얻게 된 것은 2010년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SF가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꼽는 것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다.<sup>6</sup> 이는 SF에서 그리는 세계가 더 이상 추상적인 먼 미래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 이미 도래해 있음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영향력이 컸던 기술과학의 장면은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일어난 2000년대에도 존재했기에, 알파고 자체만으로는 2010년대 들어 확장되고 있는 한국 SF 장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어떤 기술과학의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계기로 인해 2010년대 들어 SF적인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서사화되기 시작했는지, 또 이 서사가 왜 독자들에게 유효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는지 이다.

한국 SF의 도약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장면은 SF와 페미니즘의 만남이다. 그리고 페미니즘 대중화<sup>7</sup>가 최근 한국 SF가 주목받기 시작하게 된 데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에 따라 ‘한국 페미니즘 SF’가 발아하고 있다

---

4 이설, 「판타지 읽으며 자란 80년대생, 장르소설을 깨우다」, 『동아일보』, 2019.12.25.  
 5 한국 최초의 창작 SF는 1965년 발표된 문윤성의 『완전사회』라고 여겨진다. 여자들이 지배하는 미래 세계를 시간여행에서 깨어난 남자 화자의 시선에서 그리는 이 장편소설은 1967년 처음 단행본으로 발간되었고, 2018년 재출간되었다.  
 6 박해울, 「미래는 이미 도래했다」, 텍스트릿 엮음, 『비주류 선언: 서브컬처 본격 비평집』, 요다, 2019, 213-215쪽; 구둘래, 「2020년 ‘SF 원더’는 계속된다」, 『한겨레』, 2020.2.3.

고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사고실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제시하는 장르의 특성 상, SF는 일찍이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현재의 사회적 형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SF의 환상적인 외계와 멀리 떨어진 행성은 페미니즘의 비판적 사유를 위한 상상적인 시험장이 되기에 좋다.<sup>8</sup> 일례로 1970년대 미국의 페미니스트 분리주의 유토피아 소설들은 당시 일어났던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의 자장 속에서 탄생한 것으로, 성평등이 이루어진 가상적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억압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부장제의 대안을 검토하고자 했다.<sup>9</sup>

이렇게 페미니즘 이론 및 운동과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페미니즘 SF는 영미권 SF 장에서 하나의 하위 장르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SF의 장르 미학은 페미니즘의 사유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새로운 페미니즘 이론을 창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독자, 작가, 텍스트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론, 정치학, 상상력이 교차함에 따라 창의적이고 복잡한 이론화가 이루어지는 까닭이다.<sup>10</sup>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페미니즘과 SF의 조우를 페미니즘 대중화의 일환으로만 분석하는 것도, 혹은 SF의 장르적인 특성으로만 분석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 이 모두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사유하는 한국 SF 소설에 대한 비평이 이루

7 메르스 갤러리(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OO계\_내\_성폭력 고발 및 미투 운동의 확산(2018년) 등의 사건을 기점으로 2010년대 후반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은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의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중화되는 양상을 띤다.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중적인 반향을 이끌어 낸 2010년대 후반의 페미니즘 운동을 ‘페미니즘 대중화’라고 일컫고자 한다.

8 Patricia Melzer, *Alien Constructions: Science Fiction and Feminist Though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p.11.

9 대표적으로 조애나 러스의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혁명하는 여자들』, 아작, 2016 수록)를 들 수 있다. 지구로부터 버려진 외딴 행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남자들은 수 세대에 전염병으로 모두 사망했으며, 여자들만이 남아 문명을 꾸려나가고 있다. 단성생식 기술을 통해 재생산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가지는 이 행성의 사회는 1970년대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분리주의적 이상을 구현한다.

10 Patricia Melzer, *op.cit.*, p.10.

어지기 시작했는데, 『자음과 모음』 SF 특집호에서 정은경<sup>11</sup>과 인아영<sup>12</sup>은 젠더와 SF의 만남을 다루면서 젠더를 사유하는 한국 SF 작품들을 개괄한다. 한편 서승희의 연구는 윤이형, 김보영, 정소연 세 여성 작가의 SF를 포스트휴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분석하면서 ‘페미니즘 SF’의 가능성을 점친다.<sup>13</sup> 이들 연구는 주로 작품의 특징을 리뷰하고 전반적인 경향성을 정리하는 형식을 갖는데, 주로 작품의 내적 차원에 주목하는 이러한 연구는 이들 작품이 개입하고, 응답하고 있는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맥락을 주요한 참조점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SF 작가들이 페미니즘의 정치적, 이론적 논의와 문화적 풍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면,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다루는 SF 텍스트를 페미니즘 논의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논의에의 기여로서 적극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sup>14</sup> 로지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텍스트는 “과정 중에 있는 항목”이자 “권력 관계의 망을 둘러싸고 있는 연쇄반응”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통해 SF 소설을 읽어내는 작업은 텍스트에 숨겨진 페미니즘적 의의를 찾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페미니즘 논의의 장 속에 텍스트를 위치시키고 “텍스트와 전체 사회 상징체계를 연결시키는 연결들과 효과들의 그물망을 해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본고는 ‘한국 페미니즘 SF’의 가능성과 그 정치적 역량을 가늠하기 위해 두 편의 SF 중편소설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독해한다.<sup>16</sup> 필자가 이 두 편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두 작품이 모두 SF의 장르 기법을 능수능란하게 운용하면서 페미니즘 대중화의 흐름이 제기한 주요 문제들을 첨예하게 풀어내고 있기에, ‘한국 페미니즘 SF’를 이론화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

11 정은경, 「SF와 젠더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제42호, 자음과모음, 2019, 23-35쪽.

12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 모음』 제42호, 자음과모음, 2019, 47-58쪽.

13 서승희, 「포스트휴먼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30-153쪽.

14 Patricia Melzer, *op.cit.*, p.9.

15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험과 성차의 문제』, 여이연, 2004, 245쪽.

16 두 작품 모두 SF 중편 앤솔로지 『아직 우리에게겐 시간이 있으니까』(한겨레출판, 2017)에 수록되어 있다.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이 두 작품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차이’에 관한 것이라 보고, 이를 논하기 위해 차이를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사유한 철학자 질 들뢰즈와, 들뢰즈의 차이 개념을 성차(sexual difference) 개념을 통해 재사유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여성 주체를 새롭게 이론화한 로지 브라이도티의 이론을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sup>17</sup> 최근 한국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에서 차이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과 경합이 벌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차이라는 키워드로 이들 작품을 독해하는 것은 이론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 페미니즘 SF가 갖는 잠재력을 밝혀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조우를 동시대성(contemporary)<sup>18</sup>과 잠재성(virtuality) 개념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한국 페미니즘 SF’를 이론화하기 위한 초석을 놓고자 한다.

## 2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 읽기

### 2.1 지금-여기의 젠더 관계를 낫설게 하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는 우주선에 탑재된 위기관리 AI 컴퓨터 훈HUN-1029를 통해 남성과 여성,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와 위계에 대해 질문한다. 작품의 배경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로 향하는 중이던 보급선 ‘혜자’로, 이 우주선의 선원들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서 보낸 구조신호를 받고 구호 물품 보급을 위해 타이탄으로 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선원들 사이에 불화가 일게 되고, 이 와중에 위기관리 AI 훈은 파업 후 자신의 정신을 우주선에 딸린 유사인간 의체로 이식해줄 것과 인간 승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야 밝혀지지만 이러한 훈의 결정은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선내에 존재하게 되면 이 이질적인 존재를 경계하고 배척하느라 인간 승무원들의 결속력이 다시 좋아지리라 예상했기 때문이

17 들뢰즈의 철학과 페미니즘을 연결시킨 논의에 관해서는 김은주,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에디투스, 2019 참조.

18 본고에서 동시대성이란 현재 또는 당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여 발산하는 방식을 지시한다.

다. 그런데 혼은 이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존에 존재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즉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임을 감지하고 이 인식의 맹점을 찾아내기 위해 선원들을 관찰하며 지식을 쌓아 나가기 시작한다. 인간의 신체로 이식된 후 기억의 많은 부분을 잃은 인공지능 혼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 소설은 이렇게 혼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추리 소설의 형식을 취하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인식적 충격을 의도한다. 혼은 우주선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묘사하면서 선원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 그리고 선원들과 자기 자신 사이의 관계를 띄엄띄엄 파악하며 이 퍼즐을 맞추어 간다.

이 소설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선원은 선장 이진서, 항해사 강우민, 조종사 김지훈, 프로그래머 남찬영, 통신사 구경태 다섯 명으로, 폭력적인 성격의 강우민과 냉정한 성격의 이진서가 선원들 사이 갈등의 주요 축이다. 혼은 항해사 강우민을 대표 격으로 조종사 김지훈, 통신사 구경태 세 명이 연합하여 선장 이진서에게 반발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선원들 중 선장의 편에서 조력을 주는 이는 프로그래머 남찬영 정도 뿐이다. 타이탄에 보급을 하는 것이 현재 이 우주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이미 타이탄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사 강우민은 선장 이진서의 모든 보급 계획에 반대하면서 선원들 사이에 비논리를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강우민, 김지훈, 구경태 세 사람은 인간의 형체를 한 혼을 때리고 가두고 강간을 시도하면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기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 선장 이진서 역시 처음에는 인간과 유사하지만 인간이 아닌 혼에게 묘한(uncanny) 위협을 느끼고 혼을 위협하나, 타이탄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적 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혼과 연합하게 된다. 혼과 이진서의 연합은 이 소설의 중심적인 사건이자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원래대로라면 이진서는 혼을 위협하고 배제하면서 인간 승무원들과 연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진서가 혼과 연합하자 강우민을 비롯한 선원들은 선장에게 더욱 반발하게 되고, 중국에는 선상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여전히 이진서를 둘러싼 ‘분위기’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혼은 이진서에게 배에 타기 전에 뭐 잘못된 것이라도 있느냐고 묻는데,



이진서는 “여자 말 안 듣는 사내놈들은 썰고 썰”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한다.<sup>19</sup> 이렇게 해서 혼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차별에 대한 지식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혼에게서 성차별에 대한 정보를 지웠고, 그 때문에 혼은 지금껏 우주선 내에 존재하던 미묘한 권력의 역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혼의 깨달음에 발맞추어 그제서야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별을 되짚어보게 되는데, 선장 이진서 그리고 그와 연합하는 프로그래머 남찬영 둘만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혼이 우주선에 선원을 배치할 때 인종, 국가를 고려해 같은 언어와 국적으로 선원들을 구성했으나, 성차별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여남 성비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불균등한 젠더 배치는 이진서에 대한 멸시와 저평가, 따돌림이 선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도록 했고, 강우민을 비롯한 남성 선원들이 여성 선장의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소설은 스스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인류가 태양계 외행성에게 진출할 만큼 기술과학이 발전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듯한 익숙함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국적과 언어의 선원들이 배치된 우주선 ‘혜자’의 닫힌 세계는 성차별이 극심하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고 싶어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버전이다. 특히 작중에서 성차별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인공지능에서 젠더 변수를 삭제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지난 2016년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전국 ‘가임기 여성’의 수를 표기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제작 배포했던 행정자치부와 같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격(backlash)<sup>20</sup> 세력과 오버랩되면서 이 소설이 지닌 현재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주도된 세계 속에서 작가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인공지능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를 생소하게 묘사하고, 이를 통해 성차별의 메커니즘을 거리두기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낯설게 보여준다.

19 김보영, 「얼마나 닮았는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한겨레출판, 2017, 246쪽.

20 수잔 팔루디에 따르면, ‘백래시(backlash)’란 “여성운동이 어렵사리 쟁취한 한 줌의 작은 승리를 무력화하려는 노력”이자,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역습, 반격”이다. 수잔 팔루디, 황성원 역, 『백래시』, 아르테, 2017, 42쪽.

이러한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sup>21</sup> 기법은 1970년대 미국 페미니즘 SF의 주요 기법 중 하나로, 일상화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성차별적 구조를 투명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당시 많은 페미니즘 SF 소설들이 젠더 이분법이나 성차별이 사라진 미래의 세상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가부장제의 대안을 검토했다면, 김보영은 거꾸로 성차별이 온존하는 미래를 인공지능 화자를 통해 낯설게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젠더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한다.

## 2.2 페미니즘 인식의 순간과 차이의 윤리

미래와 현재가 중첩되어 있는 이 소설은 그 자체로 페미니즘 인식의 순간을 은유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대중화의 동시대적인 흐름과 공명하기도 한다. 등장인물의 젠더가 제시되지 않고 그들의 직책이나 성격만이 제시되는 소설의 초반부에서 독자들은 이진서나 남찬영을 남성으로 패싱<sup>22</sup>하기 쉽다. 이는 선장이나 프로그래머라는 직무가 주로 남성 젠더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의 기본

---

21 낯설게 하기는 러시아 형식주의자 빅토르 슈클로프스키에 의해 강조된 개념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한 관습적인 시각에서 이탈하여 새롭게 보는 것을 뜻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연극을 이론화하면서 슈클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 개념을 소외 효과(alienation effect)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소외 효과란 연극의 관객들이 극의 설정이 단순히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구성이라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기법이다. 다크 수빈은 SF 장르의 시학을 이론화하면서, 슈클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와 브레히트의 소외 효과를 결합하여 SF를 ‘인지적 소외(cognitive estrangement)’의 문학으로 정의한다. SF의 인지적 소외는 노뎀(novum)을 통해 성취되는데, 노뎀은 텍스트 세계에 도입된 새로움을 뜻하는 수빈의 개념이다. 노뎀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 속 세계와 현실 세계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고, 친숙한 현실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게끔 한다. 브레히트에게서 연극의 가치가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중국에는 현실에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듯, SF를 유토피아 및 디스토피아 문학의 전통과 연결시키고자 했던 수빈에게 SF의 가치는 노뎀에 의해 야기된 변화를 낯설게 인지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SF의 현재와 미래, 현실과 가상은 노뎀을 경유하여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본고에서는 수빈의 개념을 운용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이론이 진보 서사와 선형적 시간 개념에 의존한다고 보고, 선형적인 시간관이 아닌 존재론적 시간 개념을 통해 SF의 미래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Darko Suvin,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pp.4-6.

항이 남성 젠더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훈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성차별이라는 것이 드러난 후에야, 독자들은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의 젠더를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패싱하는 관습적인 독해 방식을 성찰하게 된다. 또, 소설이 훈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진행되고 있기에, 독자들은 젠더라는 렌즈로 소설 속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스트로서 자각하는 계몽의 순간을 경험한다. 젠더가 “모든 순간에 존재”하며 “인간의 모든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독서 경험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틀로서의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이자, 페미니스트 되기의 경험이다. 게다가 이러한 읽기 경험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많은 여성들이 증언했던,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전부 재편되는 페미니즘 인식의 경험과 오버랩되면서 이 소설이 갖는 동시대성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얼마나 닮았는가」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공기와 같은 성차별과 그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페미니스트 모멘트’를 현재의 경험으로 갱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시대적이다.

게다가 젠더라는 변수와 성차별이라는 메커니즘은 스스로 불쾌한 타자가 됨으로써 인간 선원들의 단합을 꺾었던 훈의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드러낸다. 소수자의 위치에 있던 이진서가 또 다른 소수자인 훈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여성과 외계인 또는 괴물적인 타자 사이의 감정 이입은 페미니즘 SF의 오랜 클리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여성이 ‘제 2의 성’—이리가라이의 용어를 빌리자면 동일자의 타자(Other of the Same)—으로 정의되어 온 현실을 반영한다.<sup>24</sup>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남성을 주체의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이에 들어맞지 않는 이들을 타자화하는 동일성

22 패싱(passing)이란 누군가가 특정한 정체성 집단이나 범주에 속하리라 여겨지는 것을 뜻한다.

23 김보영, 앞의 글, 251쪽.

24 Sarah Lefanu, *In the Chinks of the World Machine: Feminism and Science Fiction*, Toronto: The Women’s Press, 1988. (Rosi Braidotti, *Metamorphoses: Towards a Materialist Theory of Becoming*, Cambridge: Polity Press, 2002, pp.190에서 재인용.)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 2의 성』에서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의 여성이 남성에 대한 ‘타자’로 규정되고 있음을 밝힌

의 논리에 기반한 것임을 통찰해 냈다. 동일성의 논리는 이성과 감정, 남성과 여성, 인간과 비인간 등의 위계적인 이분법을 낳고 후자를 전자의 부정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성별, 성적 지향, 인종, 민족, 계급, 장애 등 수없이 많은 맥락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소수자들의 존재 양식은 차이를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sup>25</sup> 차이가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한, 인간 여성과 인공지능 안드로이드는 동일자의 타자 범주 안에서 동화되고 말기 때문이다.

실상 인간이 타인에게 자아가 있다고 추측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가’.

(…) 하지만 결국, 인간이 누구에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는 단순한 습관일 뿐이야.<sup>26</sup>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얼마나 닮았는가’는 동일성의 논리가 갖는 폭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강우민이 이진서와 혼을 대하는 태도는 타자에 대한 몰이해 및 타자에 대한 주체의 자기 투사에서 기인하는 폭력이다. 그런데 대문자 남성으로 대표되는 동일성의 논리에서 타자로 묶인 이진서와 혼은 서로의 존재 방식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긍정적인 차이의 논리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 이진서가 혼을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보호

---

다. 그에 따르면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차별과 예측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남성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루스 이리가라이는 보부아르의 이론이 여성을 ‘동일자의 타자(Other of the Same)’의 자리에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성이 남성 주체를 기준으로 정의되는 한 동일성의 논리에 여전히 포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5 들뢰즈는 차이를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수적인 것, 질적 변이의 역량을 지닌 것으로 재개념화한다. 차이를 부정이나 결핍으로 정의하는 기존의 이분법은 한쪽에 우월성과 우선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차이들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출할 가능성을 약화시키기에 억압적이다. 들뢰즈에게 차이란 긍정적인 역량으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윤리학의 출발점이다. 김은주,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에디투스, 2019, 23-33쪽.

26 김보영, 앞의 글, 209쪽.

한 것은, 작중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혼의 의체가 여성 몸의 형태를 하고 있어 혼이 이진서를 ‘같은’ 여성으로 인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혼과 이진서가 인공지능 안드로이드와 인간 여성이라는, 서로의 차이를 긍정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혼은 인간의 신체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리고 이진서는 혼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이 사실상 혼을 타자화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혼에게 사과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긍정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은 혼에게 하는 이진서의 키스로 감각된다.

따라서 소설의 마지막, 혼이 보급을 하기 위해 직접 셔틀을 타고 타이탄으로 내려갈 때 타이탄의 구호민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나와 닮은 이들”이라는 표현에서의 ‘닮음’ 역시 동일성의 인식이 아니라 차이의 긍정을 뜻한다. 결국 「얼마나 닮았는가」는 성차별의 논리가 종차별의 논리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짚어내면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여성들, 소수자들 사이의 차이를 긍정하는 것이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의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윤리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젠더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이들 차이를 긍정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임을 드러낸다.

한편 페미니즘은 여성들, 소수자들 사이의 차이를 긍정하는 동시에 이들 차이를 정치적으로 조직해내고자 한다. 여성들, 소수자들이 어떻게 주체화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자를 동일성의 체계로 끊임없이 포섭하는 주체 개념이 아닌 새로운 주체 개념을 상상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 여성, 인간과 동물, 유기체와 기계를 배타적인 것으로 구획하고 후자를 타자화하는 논리에 가려진 소수자들의 경험적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주체 개념 말이다. 따라서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cyborg)와 같이 기존 표상의 질서에서는 보일 수 없는 새로운 형상화(figuration)가 요청된다. 해러웨이는 그의 사이보그 형상화를 SF 소설에서 상당부분 끌어오는데, “페미니즘 SF를 채우는 사이보그들은 남성이나 여성, 인간, 인공물, 인종 구성원, 개체적 실체, 몸의 지위를 매우 문제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sup>27</sup> 이러한 새로운 형상화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

---

27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 20세기 후반의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79쪽.

에 낯설게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실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상화를 듀나의 「두 번째 유모」를 독해하며 찾아 보고자 한다.

### 3 듀나의 「두 번째 유모」 읽기

#### 3.1 아버지의 폭력성을 비꼬아 뒤집기

듀나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SF 소설을 창작해 왔으며, 작품의 폭이나 깊이 면에서 한국 SF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한국 SF의 장르적 특징을 분석한 이지용은 듀나를 지나면서 한국 SF가 비로소 한국 SF만의 장르적인 특성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평한다. SF의 장르 문법과 클리셰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SF 서사의 환상적인 공간에 한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새겨 넣는 작업이 듀나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up>28</sup> 그런데 한국 SF 장에서 듀나가 갖는 독보적인 위상에 비해 그의 작품에 대한 학술적, 비평적 담론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듀나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작품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소녀의 의기양양한 웃음과 중년 남성의 우스꽝스러운 패배일 것이다. 듀나 소설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소녀 모티프는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독해될 가능성이 충분하나, 아직 그러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듀나의 SF가 갖는 페미니즘적 역량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두 번째 유모」는 기술적 특이점 이후의 인류가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물으면서 ‘인간’의 새로운 형상을 제시한다.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인간을 엇비슷하게 닮았지만 인간이 아닌 생명체”<sup>29</sup>인 아이들과, 이모 서린이다. 서린은 화성에서 온 지구 출신 인간 여성으로, 작중 시점보다 과거에 아이들을 트리톤으로

---

28 이지용, 「한국 SF의 장르적 특징과 의의—근대화에 대한 프로파간다부터 포스트휴먼 담론까지」, 『대중서사연구』 제50호, 대중서사학회, 2019, 33-69쪽.

29 듀나, 「두 번째 유모」, 『아직 우리에게겐 시간이 있으니까』, 한겨레출판, 2017, 303쪽.

데려와 키운 또 다른 이모 가을과 같은 ‘클랜’—지구에 존재하던 인간 집단의 단 위인 것으로 추측된다—출신으로 소개된다. 서린 자신도 우주 생활에 맞게 개조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서린의 눈에 트리톤의 아이들은 외계인으로 보일 만큼 이질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 서린이 가을에 이어 아이들을 맡을 ‘두 번째 유모’로 트리톤에 도착하면서 소설은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모 서린이 이들을 돌보는 유모로 트리톤에 온 이유는 소설의 중반부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인류의 지능을 초월한 초인공지능이 탄생한 특이점 이후의 우주를 그리는 「두 번째 유모」의 태양계에는 두 종류의 초인공지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태양계 각 행성을 지배하는 인공지능 ‘어머니’로, 인간과의 연관성을 일부러 끊어내고 차가운 이성으로 쌓아 올린 “순수한 거대 인공지능”<sup>30</sup>으로 묘사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아버지’로, 인공지능과 거기에 연결된 인간들이 결합해 만들어졌다. “이성과 광기가 최악의 방식으로 결합된 존재들”<sup>31</sup>인 수많은 인공지능 아버지들은 서로를 병합해가면서 ‘카오스’와 ‘오더’라는 이름의 두 거대 인공지능으로 성장했고, 작중 시점의 20여 년 전 카오스와 오더는 지구와 금성을 무대로 마지막 전쟁을 벌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전쟁으로 인해 40억여 명의 인간이 학살당했고, 지구의 많은 부분은 폐허가 되었다. 카오스(혼돈)와 오더(질서)라는 이름은 두 아버지 사이의 전쟁에 어떤 이념적인 대립이 있었을 것임을 예상케 하나,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서린의 서술은 인간의 입장에서 두 아버지는 모두 같은 학살자에 불과함을 드러낸다. 아버지들 사이의 전쟁을 끝낸 것은 화성의 어머니로, 전쟁 이후 살아남은 인간들은 화성으로 이주해 어머니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트리톤의 아이들은 초인공지능의 전쟁으로 인류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인간종이다. 서린과 가을이 속했던 클랜의 과학자들은 우주 환경에 적응하기 적합한 종을 만들어 냈고, 전쟁의 막바지에 가을은 신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생물종을 가지고

30 위의 글, 286쪽.

31 위의 글, 286쪽.

해왕성의 트리톤으로 망명했다. 해왕성의 어머니는 가을의 망명을 받아들여 트리톤의 궤도 위에 콜로니를 지어 주었고, 가을은 이 콜로니에서 아이들의 첫 번째 유모가 되어 이들을 부화시키고, 양육했던 것이다. 이야기가 전개되어감에 따라 두 번째 유모인 서린이 트리톤에 오게 된 이유가 드러나는데, 마지막 전쟁 이후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인공지능의 파편들이 나노봇에 담겨 태양계 전역에 떠돌고 있었으며, 나노봇으로 이루어진 아버지의 ‘유령’ 혹은 ‘안개’가 점차 모이면서 해왕성으로 접근 중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흡수하면서 성장한 아버지 인공지능의 유령은 인간과 비슷하지만 인간은 아닌, 서린의 표현을 빌리자면 ‘징그러운’ 트리톤의 아이들을 혐오하고, 따라서 아이들을 말살하기 위해 트리톤으로 향하고 있다. 서린은 클랜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가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유령으로부터 가을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트리톤에 온 것이었다.

「두 번째 유모」를 SF의 하위 장르로 규정한다면, 먼저 주인공 서린과 아이들이 외행성을 배경으로 사악한 신이 되어버린 인공지능에 맞서 싸우는 호쾌한 스페이스 오페라<sup>32</sup>이다. 또, 초인공지능의 가능한 형태에 대해 숙고하는 특이점 소설이기도 하다. 그런데 등장인물에 붙은 ‘아버지’, ‘어머니’, ‘이모’, ‘아이들’과 같은 이름은 이 소설을 페미니즘의 언어로 독해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극도로 비이성적이고 불안정한 존재로 그려지는 아버지와, 극도로 이성적이거나 그 합리성으로 인해 불가해한 존재로 그려지는 어머니의 대비는 SF 장르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어 왔던 비이성적이고 사악한 어머니 괴물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이다.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여성성과 괴물성은 남근이성중심적 담론 질서의 특징

32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a)란 SF의 하위 장르 중 하나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모험담을 폭넓게 지칭한다.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명칭은 주부들이 주로 시청하는 통속적인 연속극을 지칭하는 ‘soap opera’나 말을 타고 달리는 카우보이들이 등장하는 진부한 서부극을 가리키는 ‘horse opera’에서 유래한 것으로, 흔해빠진 우주탐험 이야기를 폄하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스페이스 오페라는 1920년대와 30년대 대중잡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1930년대와 40년대에 이르는 이른바 미국 SF 황금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스페이스 오페라는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진화하고 성장하여 SF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되었다.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6, 35-36쪽.



인 이항대립—인간/비인간, 남성/여성, 이성/감정, 정신/육체, 문화/자연 등—의 논리에 갇혀 있는 “편하의 체계”<sup>33</sup>로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sup>34</sup> 즉, 이성적인 남성 주체의 자기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타자들—여성, 귀어, 괴물 등—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 그런데 인간과 닮았지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아버지의 편협함은 여성혐오, 소수자혐오의 논리와 그 궤를 같이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과 결부되어 왔던 광기와 괴물성이 사실은 인간/남성(man) 주체의 투사에 불과했음을 폭로한다. 듀나는 인간/남성의 편견과 아집이 결합되어 진화한 인공지능의 광기를 대문자 남성의 기호인 ‘아버지’에게 부착함으로써 이 편하의 체계를 뒤집고, 비꾼다.

이 소설의 재미있는 지점은 이와 같은 전복이 전능하고 이성적인 어머니에 대한 긍정으로 쉬이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가해한 신과 같은 존재로서 어머니 인공지능은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 개별자인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아버지와는 전쟁에서 아이들이 모두 죽는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얼마든지 새로운 개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폭력성과 어머니의 무관심성 사이에서 아이들의 생존과 지속을 도모하는 이는 인간 여성 가을과 서린으로, 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인간보다 “훨씬 우주에 잘 적응하는 몸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버지 따위를 만들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정신을 갖고 있”<sup>35</sup>는 이 아이들의 존재는 아버지로 상징되는 인류의 폭력성에 대한 대안이자,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초인공지능의 지배 하에서 생물학적 개별자인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가을—그리고 작가 자신—의 물음에 대한 답이다. 우주에는 아직 “더 많은 의지들, 욕망

33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139쪽.

34 이리가라이에 따르면 ‘주체’에 관한 모든 이론은 언제나 ‘남성적인’ 것에 의해 전유되어 왔다. 남근이성중심주의란 주체성의 단 한 가지 모델, 즉 남성적 모델을 이용하는 것으로, 모든 타자는 이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정의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차이는 단일한 언어 체계로 환원되며, 남근중심적 의미화 경제를 구축한다. Elizabeth Grosz, *Sexual Subversions: Three French Feminists*, Crows Nest: Allen & Unwin, 1989, pp.104-107.

35 듀나, 앞의 글, 308-309쪽.

들”<sup>36</sup>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3.2 안티-오이디푸스 서사와 소녀 유목민

앞서 언급했듯, 듀나 소설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주인공 소녀 캐릭터이다. 의기양양한 웃음을 띤 소녀, 그 중에서도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당당한 소녀의 이미지는 듀나 SF에서 반복되는 모티프이다.<sup>37</sup> 「두 번째 유모」의 새로운 인간종 아이들은 본질적으로는 성의 구분이 없으나, “자매들”<sup>38</sup>로 지칭되기에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읽힌다. 아이들의 성별이 여성으로 표지되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소녀가 남성과 여성의 대립항, 어른과 아이의 대립항 모두에서 언제나 통제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녀의 위치는 서구 서사의 원형을 이루는 오이디푸스 신화에 따른 것이다. 프로이트와 라캉은 오이디푸스 신화를 주체성 형성의 보편적인 과정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남성 주체에 특권을 부여하고 여성을 부정 혹은 결핍으로 표상하는 남근중심주의를 반복하고, 지탱한다. 소년-어머니-아버지의 삼각 구도에서 여성은 욕망의 금지된 대상으로서 어머니의 위치에 놓일 뿐이며, 소녀는 주체성 형성의 표준 모델에서 누락된다.<sup>39</sup> 테레사 드 로레티스는 오이디푸스 서사가 자기인식을 향한 남성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며, 여기에서 여성은 언제나 걸림돌 아니면 성취물로 나타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40</sup> 모험담은 전통적으로 남자들, 소년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여성들, 소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서사 형식이였다. 그러나 듀나는 아버지의 폭력성으로 인해 균열이 난 기존의 세계에서 살아

---

36 위의 글, 323쪽.

37 「너네 아빠 어딴지?」(『용의 이』, 북스피어, 2007 수록), 「아이들은 모두 떠난다」(『면세구역』, 북스토리, 2013 수록), 「수련의 아이들」(『두 번째 유모』, 알마, 2019 수록), 『민트의 세계』(창비, 2018) 등.

38 위의 글, 279쪽.

39 소녀는 “팔루스적 상징계에 진입하기 이전의, 정체성이 동요하는 순간”을 표지한다. Rosi Braidotti, *op.cit.*, p.241.

40 Teresa de Lauretis, *Alice Doesn't: Feminism, Semiotics,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p.133.

남기 위해 욕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새로운 삶의 조건을 찾아 나서는 모험 서사의 주인공으로 소녀를 내세우면서 세계의 안티-오이디푸스적 재편을 꾀한다. 여기에서 안티-오이디푸스란 단순한 위치 바꿈이 아니며, 여성을 남성의 반대 혹은 결핍으로 정의하는 신념체계, 서사형식 자체의 균열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욕망하는 소녀 캐릭터는 오이디푸스 서사에서 욕망의 대상 또는 욕망의 매개로 기능해 온 여성의 수동적인 위치와 그 위치를 영속화해 온 남근중심적인 토대를 약화시킨다.

더불어 이러한 듀나의 소녀 캐릭터는 여성 주체성에 대한 관습적인 관점과 재현을 전복하는 페미니스트 대안적 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다. 형상화란 근대적인 주체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성을 개념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페미니스트들에게 대안적인 형상화가 중요한 이유는 근대적인 주체 개념이 남근중심주의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브라이도티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주체의 형상화로 유목민(nomad)을 제시한다. 브라이도티에 따르면 유목민은 “집 없음이나 강제적인 장소 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목민은 “고착성에 대한 모든 관념, 욕망 혹은 향수를 폐기”한다.<sup>41</sup> 브라이도티가 새로운 여성 주체의 형상으로 유목민을 제시한 이유는 여성 주체가 단 하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다른 존재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목적 주체는 여성들, 소수자들 사이의 차이, 여성들, 소수자들 내부의 차이를 연결하면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연결점들을 만들어 가지만 어떠한 정체성도 영구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듀나는 인간/남성/아버지의 폭력성에 의해 망가진 세계를 냉소적으로 제시하지만, 단순히 대문자 남성의 안티테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은 인간성의 원형을 찾아 미지의 기원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며, 유토피아를 손쉽게 상정해 두고 그리로 도피하지도 않는다. 다만 아이들이 망가진 세계에서 적응하고, 환경에 맞추어 변이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갈 가능성을 열어 놓을 뿐이다. 결국 「두 번째 유모」의 아이들은 세계의 안티-오이디푸스적 재편을 실행하는 유목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인공지능이 소멸하고 서린이 우주선에 숨

41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59쪽.

겨 온 또다른 인공지능 ‘릴리안 기시’가 해왕성 어머니 인공지능의 독재를 종식시킨 이후, 신인류 아이들 앞에 펼쳐진 세계는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이해 나갈 수 있는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유목적 존재 방식은 동일성의 폭력이 땅가뜨린 세상에서 소수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 4 SF의 잠재적인 미래와 페미니즘 대안 세계

196-70년대 미국은 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제 2 물결 페미니즘이 역동하던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194-50년대 ‘Big 3(아서 클라크,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인)’와 편집자 존 캠벨로 대표되는 백인남성중심적인 SF계의 경향에 반기를 드는 작가들의 등장으로 SF의 ‘뉴 웨이브’가 시작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1970년대 미국의 페미니즘 SF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정치적인 ‘새로운 물결’과 SF계에서 일어난 ‘새로운 물결’의 만남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조애나 러스, 어슐러 K. 르 쿨,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 등 여러 페미니스트 SF 작가들은 성차별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현실에 대해 질문하면서 공고한 질서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이러한 픽션은 당시의 사회관계를 참조하는 동시에 전복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사회현실의 자장 안에서 역동한 결과이다.

현재 한국의 SF 또한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과 조우하며 페미니즘적인 상상력을 키우고 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다루는 SF 작품들은 2016년 이후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주제와는 상관없이 여성 작가가 쓴 단편들을 묶은 『여성 작가 SF 단편 모음집』(온우주, 2018)과 페미니즘 SF의 계보를 잇는다는 기획 의도에 맞추어 단편을 창작해 묶은 ‘SF 허스토리 앤솔로지’ 『우리가 먼저 가볼게요』(에디토리얼, 2019)의 출간이 대표적이다. SF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여성들의 SF에도 계보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두 선집에는 여성 폭력, 성역할, 모성, 남성성, 장애여성 등에 대해 다루는 SF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성과 페미니즘을 염두에 둔 소설 선집은 페미니즘 대중화 및 ‘여성서사’<sup>42</sup>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본격문학 영역에서 먼저 등장한

바 있다.<sup>43</sup> ‘페미니즘 소설’ 자체가 지향점이자 기획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페미니즘이 출판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소설이라는 문학적 양식이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비전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젠더를 주요한 요인으로 두는 한국 SF 소설의 창작 및 출판은 페미니즘 대중화에 따른 페미니스트 독자층의 형성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해외 작가들의 SF 소설이 동시대 페미니스트의 ‘무기’로 널리 읽히게 된 상황이 중요하다.<sup>44</sup> 젠더 권력 관계가 역전된 세계를 그려 온라인 페미니즘 커뮤니티 ‘메갈리아’ 명칭의 레퍼런스가 된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이갈리아의 딸들』, 여성들의 재생산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근본주의 독재 국가를 배경으로 해 낙태죄가 온존해온 한국의 현실과 공명한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는 모두 2015년 이후 한국 페미니즘 대중화의 자장 속에서 현재성을 획득하며 새로운 독자들을 확보한 대표적인 SF 소설이다. 제2물결 페미니즘의 자장 안에 있던 197-80년대 미국에서 주로 쓰이고 읽혔던 이들 SF 소설이 2015년 이후의 한국 페미니스트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되고, 액티비즘의 계기로 작용하는 이와 같은 상황은 SF에서 그려지는 가상세계가 단순히 허황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현실성을 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소설을 통해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SF의 장르 문법은 한국의 페미니스트 독자들 사이에서 젠더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주요한 자원이자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SF적인 상상력을 익숙하게 수용하는 독자층의 확대는 젠더를 사유하는

---

42 페미니즘 대중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문학, 영화, 드라마, 웹툰, 대중가요 등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에서 재현되는 여성혐오를 지적하고 비판해 왔다. 이는 여성혐오적인 재현이 담기지 않은 콘텐츠,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여성 창작자의 콘텐츠 등 ‘여성서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소비하자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43 『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의 작가 조남주의 단편을 표제로 하는 『현남 오빠에게』(다산책방, 2017)는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간되었다. 이는 오혜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에도 ‘마르크스주의 소설’이라고는 붙어 있지 않은데, 페미니즘 소설은 내가 읽고 판단하기 전에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쓰여 나온”다는 점에서 독특한 장면이다. 최영주, 「‘여성서사’는 늘 다르게 상상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노컷뉴스』, 2019.6.20.

44 구돌래, 「성난 여성들의 무기는 책」, 『한겨레』, 2016.3.6.

한국 SF 창작의 토양을 만들면서 ‘한국 페미니즘 SF’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의 페미니즘 SF가 그러했듯 현재 한국의 SF 역시 사회정치적인 변혁의 물결과 함께 역동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SF와 페미니즘의 조우는 미래로 정향된 대안적인 세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갖는다. SF 소설을 리얼리즘 소설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가상적인 미래 세계를 그린다는 점이다. 흔히 SF가 그리는 가상세계는 발전이나 진보를 선형적으로 상정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목적이 달성될 것을 전제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르로서의 SF가 정향하는 미래는 가상이 아닌 잠재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잠재성은 SF가 그리는 미래의 존재론적인 위상을 뜻한다. 시간을 존재론적 차원에서 개념화한 들뢰즈에 따르면 ‘잠재적인 것(the virtual)’이란 현행적으로 현전하지 않는 것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인 것은 그 자체로 실재한다. 다만 잠재적인 것은 ‘순수 과거’의 시간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과거란 선형적인 시간관에서 상정하는, 한 때 현행적이었던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결코 현전했던 바 없는 잠재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순수 과거이다. 그리고 미래는 시간 전체의 종합으로, 미리 상정된 미래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전체, 잠재적인 것 전체를 다시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성(becoming)으로서 존재한다.<sup>45</sup>

SF의 잠재적 세계는 현재에 해결될 수 없고, 거의 인식되지도 않는 딜레마에 대한 해결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sup>46</sup> 따라서 SF는 소설 속에서 배경이 되는 때가 연대기 상으로 미래이던, 과거이던, 현재이던지 간에 한 번도 도래하지 않았던 세계를 그린다는 점에서 미래의 잠재성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SF 세계가 상정하는 미래는 현재에 대한 낯설게 하기 작업을 통해서 꾸준히 새롭게 상상되는 잠재로서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선형적인 시간선(timeline)에서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 하나의 시퀀스가 아니라, 시간 전체를 종합하는 생성이다. 선형적이지 않은 시간 개념, 계속해서 다시 쓰이고 겹쳐지는 시간성은 장르로서의 SF가 갖는 주요한 특징이다.

---

45 안 소바나르그, 성기현 역, 『들뢰즈, 초월론적 경험론』, 그린비, 2016, 130-132쪽.

46 Istvan Csicsery-Ronay Jr., *op.cit.*, p.3.

이러한 SF의 잠재성/미래성은 페미니즘의 동시대성과 교차하면서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페미니즘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과거와, 중국에는 페미니즘이 필요 없는 사회를 꿈꾼다는 의미에서 미래를 모두 염두에 두면서 움직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역동하기에 동시대적이다.<sup>47</sup> 조르조 아감벤은 동시대를 체현하는 이들이란 자신의 시대에 속하지만 그에 완벽히 부합하지도 않고, 시대의 요구에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들은 시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특히 뛰어나다.<sup>48</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대의 상식이라고,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치 체계를 특수화하면서 대안적인 가치 체계를 모색하는 페미니스트들이야말로 동시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듀나의 「두 번째 유모」는 차이의 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임을 통찰하면서 동일성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는 대안적인 세계를 상상한다. SF의 잠재적인 미래가 페미니즘과 조우하면서 차이를 긍정하는 힘, 세계를 재편하는 역량으로 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SF와 페미니즘의 조우는 단순히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당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대적인 것이 아니다. 과거를 의식하고 현재를 바꿔내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페미니즘의 시간성이 아직 실현된 적 없는 잠재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SF의 장르 미학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적인 것이다. SF의 잠재적인 지위는 순전히 허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픽션과 현실은 SF라는 서사적인 계기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클레어 콜브룩에 따르면 “예술은 단순히 세계의 사본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의 잠재적인 중복이다.”<sup>49</sup> 그리고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는/생성하는’ 길목에 SF의 작가들, 독자들이 존재한다. 세릴 빈트가 이야기하듯, 만약 SF의 잠재적인 세계가 현재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

47 Prudence Chamberlain, *The Feminist Fourth Wave: Affective Temporality*,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pp.62-63.

48 Giorgio Agamben,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40.

49 클레어 콜브룩, 한정현 역, 『들뢰즈 이해하기: 차이생성과 생명의 철학』, 그린비, 2007, 316쪽.

래의 결정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고 그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욕구는 망상이 아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동”이며, 이는 “우리가 SF에서 나가 실세계 속으로 들어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만” 그렇다.<sup>50</sup>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조우는 현재 진행형이기에, ‘한국 페미니즘 SF’에 대한 포괄적인 일반화를 시도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김보영과 듀나라는 한국 SF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작가의 작품을 독해함으로써, ‘한국 페미니즘 SF’를 이론화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김보영, 듀나 뿐만 아니라 김초엽, 박문영 등 새로운 여성 SF 작가들이 SF 소설을 통해 대안적인 세계, 대안적인 주체를 상상하면서 ‘한국 페미니즘 SF’의 지면을 확장하는 중이다. 앞으로 우리가 페미니즘과 SF의 만남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김보영, 「얼마나 닳았는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한겨레출판, 2017, 163-269쪽.

듀나, 「두 번째 유모」,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한겨레출판, 2017, 271-342쪽.

### 단행본

김은주,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에디투스, 2019, 23-33쪽.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6, 35-36쪽.

텍스트릿 엮음, 『비주류 선언: 서브컬처 본격 비평집』, 요다, 2019, 213-215쪽.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79쪽.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우리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여이연, 2004, 59쪽, 139쪽, 245쪽.

---

50 세릴 빈트, 앞의 책, 295쪽.



세릴 빈트, 전행선 역, 『에스에프 에스프리: 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아르테, 2019, 289쪽, 295쪽.

수잔 팔루디, 황성원 역, 『백래시』, 아르테, 2017, 42쪽.

안 소바나르그, 성기현 역, 『들뢰즈, 초월론적 경험론』, 그린비, 2016, 130-132쪽.

클레어 콜브룩, 한정현 역, 『들뢰즈 이해하기: 차이생성과 생명의 철학』, 그린비, 2007, 316쪽.

Darko Suvin, *Metamorphoses of Science Fiction: On the Poetics and History of a Literary Gen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pp.4-6.

Elizabeth Grosz, *Sexual Subversions: Three French Feminists*, Crows Nest: Allen & Unwin, 1989, pp.104-107.

Giorgio Agamben,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p.40.

Istvan Csicsery-Ronay Jr., *The Seven Beauties of Science Fiction*,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8, p.3.

Patricia Melzer, *Alien Constructions: Science Fiction and Feminist Though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pp.9-11.

Prudence Chamberlain, *The Feminist Fourth Wave: Affective Temporality*,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7, pp.62-63.

Rosi Braidotti, *Metamorphoses: Towards a Materialist Theory of Becoming*, Cambridge: Polity Press, 2002, p.190, p.241.

Sarah Lefanu, *In the Chinks of the World Machine: Feminism and Science Fiction*, Toronto: The Women's Press, 1988.

Teresa de Lauretis, *Alice Doesn't: Feminism, Semiotics,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p.133.

## 논문

서승희, 「포스트휴먼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한국 여성 사이언스픽션의 포스트휴먼 표상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30-153쪽.

이지용, 「한국 SF의 장르적 특징과 의의—근대화에 대한 프로파간다부터 포스트 휴먼 담론까지」, 『대중서사연구』 제50호, 대중서사학회, 2019, 33-69쪽.  
인아영, 「젠더로 SF하기」, 『자음과 모음』 제42호, 자음과모음, 2019, 47-58쪽.  
정은경, 「SF와 젠더 유토피아」, 『자음과 모음』 제42호, 자음과모음, 2019, 23-35쪽.

#### 기사 및 인터넷 자료

구들래, 「성난 여성들의 무기는 책」, 『한겨레』, 2016. 3. 6.  
\_\_\_\_\_, 「2020년 ‘SF 원더’는 계속된다」, 『한겨레』, 2020.2.3.  
<http://ch.yes24.com/Article/View/39497> (접속일: 2020. 2. 20.)  
이 설, 「판타지 읽으며 자란 80년대생, 장르소설을 깨우다」, 『동아일보』, 2019.12.25.  
최영주, 「‘여성서사’는 늘 다르게 상상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노컷뉴스』, 2019.6.20.

### Abstract

The contemporary encounter between Korean SF and feminism  
: Focusing on Kim Bo-young’s “How Much Does It Resemble” and Djuna’s “The Second Nanny”

Eunkyo Kang, Eunjoo Kim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temporary encounter between SF and feminism, which took place amid the trend of popularizing Korean feminism. Considering that Korean SF writers share political and theoretical discussions and cultural trends of feminism, Korean SF novels that speculate on gender and sexuality need to be actively interpreted not only as a reflection of feminist discussions but also as a contribution to them. To this end, I will read two SF novels, “How Much Does It Resemble(2017)” by Kim Bo-young and “The Second Nanny(2017)” by Djuna. Kim Bo-young’s “How Much Does It Resemble” defamiliarizes the future Korean society where gender discrimination still exists through the eyes of an AI android. This shows that gender awareness is essential to escape from the vio-

lence of sameness and to affirm the differences of minorities. Djuna's "The Second Nanny" presents girls as protagonists of an adventure story in which the girls seek new conditions of life while desiring, thinking, and acting to survive in an existing world cracked by Fathers' violence. Through the girls, Djuna presents a new feminist figuration and seeks to reform the world as anti-oedipal.

Every world drawn by SF always has a virtual status in that it has never arrived, whether in the chronological future, present or past. This virtual world always orients itself to the future. The virtuality/futurity of SF creates a feminist alternative world, intersecting with feminism's contemporary temporality which aspires to a better future where discrimination has disappeared and be also conscious of the past where discrimination has existed. The virtual alternative world of SF has political power in that it motivates readers to take a new look at their present world and to intervene critically in future decisions. As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SF is recognized by both writers and readers as a major resource and method of feminism that seeks to change the gender power relations, the base of "Korean feminism SF" is expanding.

Keyword: SF, Feminist SF, Djuna, Kim Boyoung, Virtuality, Contemporary

본 논문은 2020년 3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